

“반만년 문화민족 위상세웠죠”

석굴암등 세계유산 등록 산파역 김진무 문화재관리국장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대장경판 및 판고, 종묘 등 3건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지난 12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 (57호 14면 참조)

지난 4일~8일까지 유네스코 한국대표부·경주시장 등과 함께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세계유산 지정의 산파역을 맡았던 김진무(58) 문화재관리국장은 10일 귀국

반사이익이 있습니까.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들 문화재는 유네스코의 각종 매체를 통해 세계의 문화재로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임을 인정하는 유네스코의 인정서와 세계유산 휘장(엔블럼)을 사용할 수 있어 이들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은 국제적 관광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설립된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자부담비용 내역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재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점차적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키워줄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축적이 따라야겠지요.

—문화재보호와 관련해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찰에는 예불의 대상이 되는 지정·관리 노력이 부족할 듯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방편 때마다 스님들께 성보관리를 부탁드리지만 주지스님들은 임명직이 많아 다소 관리에 소홀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문화재 조사보고서 작성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단란방지기 때문에 많이도 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공동의 책임입니다. 불교계는 이제 성보관리의 지침을 엄격하게 제정해 사찰 스스로 성보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아베(은미경·55)가 절에 다니고 말·사위가 불교방송 PD로 근무하지만 진정한 불사(佛事)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를 훼손없이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재경 기자

수요 인터뷰

이후 세계문화유산지정 관련보고와 회의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상

—3건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가치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먼저 그 의의에 대해 들려 주시죠.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됐고 문화국가로서의 지위와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의 문화재가 특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격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8월 대성문화재에 대한 잠정 목록 제출부터 세계유산 등록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4월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라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원들을 잘 몰라 불안했고 자료작성 등에도 애를 먹었죠. 또 심의과정에서 대다수의 기독교문화에 익숙한 서구인들이 기성천주의의 질문을 던져 설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 2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문가 3건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내한했던 스리랑카의 니랄 데 실바 교수(고려대학교)가 불교문화에 조예가 깊어 역사적인 미부여를 하는 등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결국 심의관들은 극동지역의 불교예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의견에 일치해 보았지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과

약력

- 38년 김릉생
- 62년 경희대 경제과 졸업
- 83년 고대 경영대학원 수료
- 76년 문공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88년 문공부 해외공보관 문화교류부장
- 91년 문화부 예술진흥국장
- 92년 국립극장장
- 93년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 94년 4월 문화재관리국장 취임

불교예술 우수성·독창성 세계가 인정 ‘지구촌 유산’ 경주남산도 추가등록 계획... “성보보존 진정한 불사”

터 유산의 훼손방지 및 영구보존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 및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우리도 유산의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고 5년마다 보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경주 고도(古都)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가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주지역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주시와 함께 불교유적이 산재한 남산전역과 왕릉지구 등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원형보존과 예술성,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중에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제출한 창덕궁 수원성과 삼선산성 무령왕릉 강진도요지 한라산 등의 세계유산 등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학계는 건교부와 문화부의 고수철등 경주문화노선을 반대하면서 제3의 수정노선(전천~화천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자율성 확대

—지난 11월 3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관리로 관리와 사찰문화재 보수가 어느정도 자율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입찰료 요건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이 허가사항이어서 입찰료 관리상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성숙도로 보아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입찰료를 징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신 자율적으로 징수된 입찰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겠지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관할권을 받는 문화재의 보수·관리비와 국고지원금 사용내역,

차적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키워줄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축적이 따라야겠지요.

—문화재보호와 관련해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찰에는 예불의 대상이 되는 지정·관리 노력이 부족할 듯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방편 때마다 스님들께 성보관리를 부탁드리지만 주지스님들은 임명직이 많아 다소 관리에 소홀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문화재 조사보고서 작성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단란방지기 때문에 많이도 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공동의 책임입니다. 불교계는 이제 성보관리의 지침을 엄격하게 제정해 사찰 스스로 성보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아베(은미경·55)가 절에 다니고 말·사위가 불교방송 PD로 근무하지만 진정한 불사(佛事)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를 훼손없이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화재관리 자율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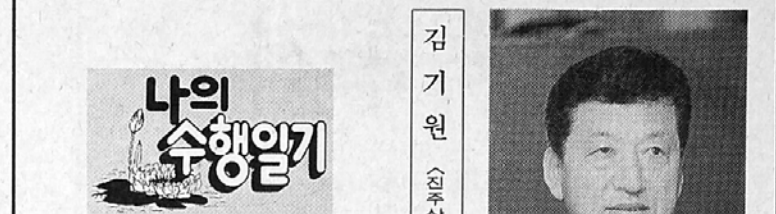
—지난 11월 3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관리로 관리와 사찰문화재 보수가 어느정도 자율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입찰료 요건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이 허가사항이어서 입찰료 관리상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성숙도로 보아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입찰료를 징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신 자율적으로 징수된 입찰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겠지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관할권을 받는 문화재의 보수·관리비와 국고지원금 사용내역,

차적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키워줄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축적이 따라야겠지요.

—문화재보호와 관련해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찰에는 예불의 대상이 되는 지정·관리 노력이 부족할 듯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방편 때마다 스님들께 성보관리를 부탁드리지만 주지스님들은 임명직이 많아 다소 관리에 소홀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문화재 조사보고서 작성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단란방지기 때문에 많이도 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공동의 책임입니다. 불교계는 이제 성보관리의 지침을 엄격하게 제정해 사찰 스스로 성보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아베(은미경·55)가 절에 다니고 말·사위가 불교방송 PD로 근무하지만 진정한 불사(佛事)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를 훼손없이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기원 (한국불교대교구장)

구세대비(救世大悲)를 실천하게 된 오늘날의 결심은 아마도 어릴적 할머니의 가르침이라 믿어진다. 어릴적 불심과 인연을 맺었던 녹동마을은 금강산 동태 범어사 큰절이 위치한 곳에서 약 40리쯤 떨어진 계명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외와아들을 둔 할머니는 온갖 정성을 쏟았고 손자인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어릴적 할머니의 등에 업혀 범어사 절을 자주 갈 기회가 많았고 국민학교를 거쳐 중립 금강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졸업까지 학교 행사와 할머니를 따라 매일 두세번씩은 꼭 동태 범어사를 참배하게 됐다.

할머니와 절에 가는 날은 그동안 마련한 곡식을 챙겨지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덕궁 잡목이 우거진 ‘뒤이골고개’를 몇 등 넘어 범어사에 닿았다. 대웅전 부처님 참배가 끝나면 곧바로 뒷 방에 계신 노스

맷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 된 나는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다. 4년동안 병명조차 알수 없는 병으로 아버님은 운명 직전이 되어 또 지문서 발문서를 주고 남의 돈을 빌려 병치료 경비를 쓰다가 대학 합격의 기쁨도 못 보시고 1954년 12월 28일 돌아가셨다. 그후 죽음에 대한 허무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병원 빛 때문에 가산은 파산되고 일가 친척마저 버리는 고아 아닌 고아로 쌓아온 꿈은 산산조각이 됐다. 짧은 삶보다 인생의 무상을 참치 가야 인연같은 범어사 금강암으로 입산을 결심 강요한 범

‘봉사하는 삶’ 어릴적부터 소망 ‘마음비우고 불심실천’ 열반을 아는 방법

님을 꼭 방문했다.

노스님은 언제나 보리살타과자를 모아 두셨다고 절값으로 나에게 주셨다. 나는 부처님 참배보다 노스님이 주는 보리살타과자를 얻기 위해 할머니의 심부름을 더 잘하게 됐다. 노스님은 보리살타과자를 주며 꼭 손가락을 잡고 맹세를 시키고 세 가지 실천사항을 큰 소리로 외치셨다. “첫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실천한다. 셋째 의술을 배워 불쌍한 사람과 스님들을 무료 치료한다”라고 스님 앞에서 외치고 과자를 먹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 하동산 큰 스님으로부터 범어사 대광루에서 처음 감로(甘露)란 법명을 받게 되고 360배의 절을 하고 철야 정신 의식을 거쳐 수계증을 받았다. 또 매일 한두번씩은 꼭 백관참회를 하며 열반한 스님의 뜻을 확인했다. 그 당시 범어사는 부처님 오신날 하루 전 행사로 신도를 위한 노래자랑대회와 연극 ‘지옥화’를 공연하여 인과응보와 윤화사상을 알리는 행사가 매년 열렸다.

고등학교가 된 나는 동태 금강산 금강사를 찾아 스님이 생각하는 열반의 참뜻을 토론했다. 석경스님(금어)을 만나는 불연은

명으로 머리를 쥐고 6개월간 살다가 혼자 계신 어머니의 만류로 다시 귀가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1955년 석유회사 특약점을 경영하는 진주의 친척집으로 옮겨졌다. 석유 특약점 일을 도우면서 진주 농대에 입학한 것이 진주와 오랜 인연이 됐다. 전기가 귀한 시대라 기를집 주인은 각 사찰에 기를 복전을 배풀어 나는 일요일이면 교

통이 불편한 사람에 기를통을 운반하는 지게꾼이 되어 산길과 개로 기를통을 운반했다. 또한 진주 호국사에 계시던 김지경 박사님께 배운 불교학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 또 지리산 생계사에 육조단경을 알고자 갔다가 생계사 뒷골에서 녹차를 만들었던 생파스님, 다리니경을 잘쓰던 화산 큰스님(생계사 포교원장), 다솔사 최법술스님을 기를집을 통해 녹차를 알게 된 인연이다.

인간이 열반을 아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불심을 실천하는데 있다. 죽은 귀신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인간에게 새생명의 선행을 못 배울수 없다. 또 인도사람은 독사들의 왕 크브라를 길들이 출을 추게 한다. 사람은 물질이 삶의 전부 아니라 열마나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찰 및 별장 최적지

- 위치: 춘천 삼악산 동선폭포 입구(강촌)로 소양강을 끼고 도로를 접한 경관간 최고의 사찰적지로 사계절 석간수가 솟고 있음
- 거리: 서울(청량리)에서 1시간 소요 (기차-메시안, 버스-10분 간격)
- 면적: 총 200평 중 대지 120평 (현재 건물 30평, 신허가 50평) -이외에도 기도원 적지 보유하고 있음

연락처
(0361) 51-6517, 54-1927
이평해 (합장)

*가격은 현지 답사후 결정하십시오

전통 사찰 메주

지하 150m 암반정수수로 빚었습니다.

순수 우리콩으로 빚은 메주입니다.

각 가정에 직접 운송해 드립니다.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이 변하고 온·만물이 변할 고대로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 전통의 맛을 지켜온 메주의 참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푸른산 아래 청정수로 빚은 메주의 새로운 참맛을 느껴 보십시오.

문의 및 접수: (0351) 63-1888
(02) 914-2828, 54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3동
대한불교조계종 경국사
주지 대운 합장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료

머리는 맑아지며 의사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행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신물용으로 적격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3.9%, 심장질환자 92.9%, 뇌동맥염 91.3%, 어지러움증 91.3%, 뇌동맥 83.8%, 고혈압 77.8%, 관절염 69.9%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제법을 적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인지 84%, 호통 인지 88%의 치료효과를 있음을 밝혀냈다. (95.2.17)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명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吳昊宗 姜宇 777-010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보세요!

내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머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수유중이 있거나 회복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배가 아프고 잔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뾰족하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밤마다 갈증이 나고 뜨겁게 잠이 든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탈종공고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배양산 1번지
- 사찰명: 봉안사
- 주 지: 진성준 (송암)

본인은 사찰 운영에 있어 자체 문제가 많아 귀 종단의 중지 중흥을 수행할 수 없어 귀종단을 탈퇴합니다.

1995. 12.
한국불교대교구 총무원장 범하